

그것들은 곧 당신으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한다. 그런 다음 당신의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당신이 돈을 구하면 그것들은 당연히 당신에게 준다. 하지만 사람 자신은 모르는데, 잃어버린 손실은 아마 영원히 다 만회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한 생뿐만이 아닌지라, 내세(來世)는 아마 더욱 비참할 것이다!

인류의 타락과 위험한 관념

중국 고대에 당신이 수도(修道)를 말했다면 사람들은 곧 이 사람은 정말로 선근(善根)이 있다고 했을 것이다. 당신이 불도신(佛道神)을 말했다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정말로 관찮다고 했을 것이다. 오늘 당신이 수불(修佛)과 수도(修道)를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을 것이다. 사람의 도덕관념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사람의 도덕관념은 일일천리(一日千里) 아주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있다. 그렇게 관념마저 타락했으면서도 도리어 고대 사람이 우매하고 미신적이라고 한다. 사람의 관념은 아주 무섭고도 두렵게 변했다. 특히 석가모니부처는 “말 법시기 이 사회에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무시무시하다.” 라고 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현재 이 사회에는 사람에게 심법(心法)의 구속이 없는데 특히 중국이 그렇다.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단지 표현형식이 같지 않을 뿐이다. 중국대륙의 ‘문화대혁명’은 사람의 이른바 낡은 사상관념을 타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공자가 말한 것을 믿지 않게 했다. 사람은 도덕적 구속이 없어졌고 도덕규범이 없어졌으며 또한 종교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들도 나쁜 일을 하면 보응(報應)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비로소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구속하는 이런 심법이 없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 다 감히 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지 않겠는가? 이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일부 외국인들은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 더욱이 그런 젊은 사람들은 특히 죽이고 찌르고 하는데, 이는 정말 큰일이다. 현재 외국에 비해 중국은 더 심하다. 특히 외국의 갱 영화나 텔레비전이 대륙에 전해올 때 대륙 사람들은 모두 홍콩과 다른 국가가 그렇게 혼란하다고 여긴다. 사실 이런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다만 자극을 바라는 관객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과장한 영화일 뿐이다. 사실 외국은 국내 사람보다 자질이 높고 훨씬 문명적이다. 그런데 국내의 젊은이들은 나쁜 것만 본받고 있지 않은가. 중국이 폐쇄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이런 것을 접촉하게 되자 외국은 모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 상하이탄(上海灘) 식의 건달 기업가를 국내에서는 분분히 모방한다. 그러나 그것은 30년대의 옛 상하이(上海)를 묘사한 것이며 또한 예술적인 과장일 뿐, 현실생활은 이렇지 않다. 사람의 관념상에서 홍콩의 갱 영화나 드라마가 중국 대륙에 끼친 영향은 아주 나쁘다. 인류의 도덕관념에 변화가 생겨, 중국에도 동성애, 마약, 마약 매매, 마피아, 성해방, 매춘부 등이 출현했는데, 그야말로

큰일이다! 어떤 사람은 촌뜨기가 개화하면 더 무섭다고 말한다. 그에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한다.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면 두렵지 않겠는가? 더 발전해 내려간다면, 사람은 어떤 모양이겠는가? 관념상에서 좋고 나쁨이 뒤바뀌었다. 지금은 누가 흉악하면 그가 가장 능력이 있다고 숭배하며, 누가 죽일 수 있고 찌를 수 있으면 이것을 숭배한다.

인류 도덕이 크게 타락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이렇다. 사람의 관념은 아주 무섭게 변했다. 지금은 아름다운 것이 추(醜)한 것만 못하고 선(善)한 것이 악(惡)한 것만 못하며, 단정하고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만 못하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이전에 음악가가 되고 가수가 되려면 훈련을 거쳐야 했다. 가창법을 익히고 또 음악 이론(樂理)도 알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긴 형상이 아주 사나운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카락을 길게 하고, 무대 위에 서서 아…… 하…… 고래고래 외치는데, 텔레비전에서 띄우기만 하면 곧 인기 스타가 되는바, 그 소리는 매우 귀에 거슬린다. 도덕이 부패함에 따라 일부 추악한 것마저 아름다운 것으로 되었으며 온통 미친 듯이 추구하고 있다. 미술작품도 마찬가지로 고양이 꼬리에 먹을 묻혀 마구 그려내는데 이것 역시 작품이라고 한다. 무슨 추상파, 인상파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그림이 보기 좋고 아름답

퇴직하여 다시 연마(退休再煉)

강의를 들었고 근기(根基) 또한 괜찮은 일부 수련생들이 사업에 바빠서 연마하지 않는데 몹시 애석하다! 만약 일반적인 속인이라면 나도 더 뭐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이 부분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인류의 도덕은 일일천리(一日千里)로 타락하고, 속인은 모두 그 물결에 따라 흐르므로, 도(道)와는 갈수록 멀어져 되돌아 수련하기란 더욱 어렵다. 사실 수련이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닦는 것으로서, 더욱이 복잡한 사업 환경은 바로心性(心性)을 제고할 좋은 기회인데, 일단 퇴직하게 되면 하나의 좋은 수련 환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아무런 모순도 다 없다면 또 무엇을 수련하겠는가? 어떻게 제고하겠는가? 당신의 타산이 간혹 좋기도 하나,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당신은 자신의 장래에 남아 있는 시간이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수련은 아이들 장난이 아니며 속인 중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엄숙한 것으로, 으레 그렇게 되려니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일단 기회를 놓치면 육도(六道) 중에서 윤회하게 되는데, 어느 때에 다시 사람 몸을 얻겠는가! 기회와 인연은 오직 한 번뿐이며, 내려놓지 못하는 몽환(夢幻)이 지나가버리면

무엇이 지혜인가(何爲智)

인류사회 중의 유명인사, 학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사람들은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모두 아주 보잘것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인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식 역시 단지 속인사회의 현대과학이 인식한 그런 조그마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방대한 우주에서 가장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미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인류사회는 가장 중간, 가장 외층, 가장 표면에 있다. 생명 역시 가장 낮은 존재형식이다. 그러므로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인식 역시 아주 낮고 얕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련한 것이다. 전 인류의 지식을 다 장악했다 할지라도 역시 속인이다.

다올수록 사람들이 더욱 감상하기를 좋아했다. 당신이 말해보라. 이것이 다 무엇인가! 이는 바로 예술가들이 추구한 이른바 인성해방(人性解放)의 결과이다. 인성은 도덕적 행위규범이 없으면 곧장 마성(魔性)의 대발작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상태 하의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관념이 모두 바뀌고 있다.

이런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인성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망설임이나 속박도 없이 제멋대로 한다. 불교에서는 도덕적 규범이 없고 마음속에 도덕적인 구속력이 없는 사람이 내보내는 것은 곧 마성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런 문예작품들을 당신이 보라! 속인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사실 모두 마성의 대폭발이다.

상점의 장난감을 보면, 예전엔 인형을 사도 보기 좋은 것이어야 했다. 지금은 추할수록 더욱 잘 팔리는데, 해골바가지요, 마귀요, 심지어 대변의 형상까지도 장난감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데, 무서운 것일수록 더욱 빨리 팔린다! 이것은 사람의 관념이 모두 바뀌어 거꾸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인류사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 주어 사람들이 곧바로 명백해질 수 있음은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하지만 인류는 필경 이런 위험한 경지까지 미끄러져 왔다. 내가 서방국가에서 강의할 때 동성

애를 언급하면서, 당신들 서양인들의 성의 문란함은 그야말로 난륜(亂倫)의 지경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들 어떤 사람이 곧 문제를 제기하기를, “동성애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은 개인 혹은 한 단체가 인정하여 표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관념에 근거하여 한 것이다. 내가 그를 좋게 여기거나 혹은 그가 나를 좋게 대하면 나도 그를 좋다고 말하고, 혹은 이미 하나의 고정 관념이 형성되어 그의 관념이 그를 좋다고 인정하면 곧 그가 좋다고 말한다. 그 집단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혹은 어떤 목적 달성에 유리하면 그것을 좋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이 존재함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은 아니다. 우주의 이치인 불법(佛法), 그는 불변하는 것으로서 인류 및 일체 사물을 가늠하고 정하는 유일한 표준이고,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당신들의 정부는 동의하지만 당신들의 천주(天主)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때면 이럴 때면 인류는 아주 위험하며,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금 이 지경에서 더 발전해 나간다면 당신이 말해 보라. 어떤 상태이겠는가? 석가모니부처는 “말법시기에는 많은 마(魔)가 사람으로 전생한 후 절(廟)로 들어가 법(法)을 어지럽힐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대만의 이름 있는 많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이 무엇인가는 고층차로 수련되어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련의 본질을 더욱 알지 못하게 하였다.法輪大法(파룬따파)는 우주의 특성[불법(佛法)]을 만고(萬古)이래 처음으로 사람에게 남겨놓은 것으로, 사람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한 부의 사다리를 남겨놓은 것과 같다. 그러니 당신이 어찌 과거 불교 중의 것으로 우주 대법을 가늠할 수 있겠는가?

불교의 논술은 불법의 가장 약소한 일부분이다

중생들이여! 불교로 眞(眞)·善(善)·忍(忍) 대법(大法)을 가늠하지 말라. 그것으로는 가늠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습관적으로 불교의 경서(經書)를 법(法)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사실 천체(天體)는 너무나 커서 우주에 대한 부처의 인식을 벗어났다. 도가의 태극 역시 작은 층차(小層次)에서 우주를 이해함이라, 속인 이 한 층에 이르러서는 이미 실질적인 법(法)이 없게 되었다. 다만 우주 변두리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좀 수련할 수 있게 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속인은 가장 낮은 층차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불법(佛法)을 알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처를 공경하면 수련 기연(機緣)의 인과(因果)를 심을 수 있고, 수련하는 사람은 주문을 가지고 고급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계율을 지키면 수련인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성인(聖人)의 말씀들을 들었다. 역사상 어떤 사람들은 각자(覺者)가 한 말이 바로 불법인지 아닌지 줄곧 연구해 왔다. 여래부처가 한 말은 불성(佛性)의 체현이라, 법(法)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우주의 실질적인 법(法)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람이 불법의 진실한 체현을 아는 것을 절대

은 화상, 거사는 실질상 마(魔)이다. 스스로 교주라 칭하는데, 그들 역시 자신이 마인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오기 전에 일생을 다 배치해 놓고 전세(轉世)하는데, 그것들은 와서 파괴하는, 그것에 따른 인생길을 걷는다. 그러므로 인류사회는 아주 무섭다. 인도에는 일부 아주 유명한 대사(大師)들이 있는데 다수가 구렁이부처이다. 중국의 기공사는 여우와 족제비 부처가 비교적 많고 뱀 부처도 있다. 말 법시기는 바로 난잡한 때이다. 일본 옴 진리교(眞理教)의 두목은 바로 지옥 속의 귀신이 전세한 것으로 마가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사람은 그 속에 있기에, 세속 중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 사회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지만 이런 정도까지 파괴되었음을 모르고 있다. 일단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란다.

그러므로 내가 이 법을 전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머리가 뜨거워져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러 가지 형식의 교란이 있다. 당신은 바른(正) 것을 전하고 그는 사악(邪)한 것을 전하는데, 어떤 것은 또 바른 사람인 양 가장해 사람으로 하여금 선(善)을 지향케 하지만, 그의 목적은 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닌바, 사람들에게는 알릴 수 없는 목적이 있다. 기공은 처음 발전할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그릇되게 나갔다. 정토(淨土) 한 폐기 있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다.

말집(末劫) 시의 인류

전 세계의 많은 정교(正敎)조차도 사람을 제도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일부 원시 정교의 경서는 후세인들에 의해 뜯어 고쳐졌으며, 교의(敎義)마저도 후세인들에 의해 곡해(曲解)되어 일종의 학문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불교를 철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배우고 있고, 현대과학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몽땅 고대 사람의 상상, 발달하지 못한 신화전설로 말해버린다. 화상과 수사(修士)들은 책만 볼 뿐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으며, 사원은 작은 사회로 되어 서로 아귀다툼을 한다. 그들은 부처에게 난을 없애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비는데, 집착심이 많기로 속인만도 못한바, 자신마저도 제도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남을 제도하라! 또 일부 명성이 높은 화상, 도사,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관념에 근거하여 임의로 불경에 대한 조그마한 이해 정도로 책을 써서 불경과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람을 기로에 빠뜨린다. 대각자가 한 말은 아주 깊은 내포가 있어 각 층차의 경지 중에서 모두 불법의 지도 작용을 체현해 낼 수 있고, 수련자의 층차를 끊임없이 제고하게 할 수 있기에, 대각자의 원래 말을 고치는 일체 행위는 모두 난법(亂法)이다.

견정(堅定)

사부가 있으면 신심(信心)이 충만하고 사부가 없으면 수련할 흥미가 없어지니, 마치 사부를 위해 수련하고 흥미를 위해 오는 듯한데, 이는 중사(中士)의 한 가지 큰 폐단이다. 석가, 예수, 노자, 공자가 떠나간 지 이천년이 넘었지만, 그 제자들은 여태껏 사부가 없어 수련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련이란 자신의 일로서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 사부된 사람은 단지 그 표면적인 법리(法理)만 알려줄 뿐이다. 마음을 닦아 욕망을 끊고 지혜를 밝혀 미혹되지 않음은 곧 자신의 책임이다. 흥미(興)로 오면 마음이 확고치 않은바, 세속으로 들어감에 필연코 그 근본을 잊게 된다. 만약 그 생각(念)을 고수하지 아니하면 일생 얻음이 없을 것이다. 언제 다시 기연(機緣)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니, 어렵도다!

전하면 필연코 단명(短命)이라, 이치는 끝나고 존재하지 않나니, 나한(羅漢)의 법(法)은 불법이 아니로다! 깨달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소위 사람이 불경,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그런 해석은 부처가 한 말의 진정한 내포에 비해 차이가 너무나도 크며, 심지어는 전혀 다른 일이다. 그 한 점을 이해했다 해도 역시 그 속인에 비해 얼마 높지 못한 자신의 층차에서 이해한 것이며, 더욱 높은 층차에 또 어떤 내포가 있는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높이로 수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래의 층차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떻게 여래가 한 말의 진정한 고층함의(高層涵義)를 알겠는가? 그런 문장은 단지 난법(亂法)만 할 뿐 사람을 제도할 수 없다. 명리(名利)적인 마음의 작용 하에서 쓴 책은, 부처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작자의 사상 틀 속으로 끌어가 고, 더 심한 자는, 종교는 마땅히 오늘의 사회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의 내포를 개변하려 한다. 불법은 금강불변불괴(金剛不變不壞)의 천리인데, 인류가 불법에 따라 되돌아 승화하는 것에 반하여, 불법을 도덕이 파괴된 인류에게 적응시키려 한다면 죄업(罪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책을 써서 불경을 함부로 해석함은 정법(正法)을 심하게 교란하는 것으로 사실 그들은 일찍이 지옥 속에 있다.

사람이 생생세세 나쁜 일을 많이 하여 비할 바 없이 큰 업력을 쌓게 된 것 역시 올바른 믿음(正信)이 생기지 않는 요소이다. 어떤 사람은 전 한 세(世)에 수행(修行)했지만

수련을 잘하지 못하고 각종 집착심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수련성취하지는 못하고, 조그마한 복을 쌓게 되었다. 다시 한 차례 사람으로 전생하면 흔히 ‘공능’을 가지게 되어, 천 목은 아주 낮은 층차 중에서 다른 공간의 정황을 조금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속인은 각종 명리심의 부추김 하에서 각종 명목의 종교를 세우는데, 표면상으로는 사람에게 선을 지향하라고 가르치지만 내심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명리(名利)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대각자는 자신의 세계(천국)가 있어 그리로 사람을 제도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사람을 제도하겠는가? 가짜 기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는 부처가 되려하고, 일부는 자신이 전생에 부처였다고 한다. 또 일부 동물 부체가 있는 사람은, 그 기공사를 무슨 일대 종사(宗師) 등등이라고 치켜세우는데, 가짜 기공사 자신도 마음이 들떠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모두 인간세상을 어지럽히는 귀신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세간(世間)은 사악(邪惡)에 의해 엉망진창이 되었다. 수 천수백 년에 걸쳐 가짜 종교, 사교(邪教), 또 많은 개량종교가 줄곧 유전하고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 바로 그러한 사교, 무교(巫教)의 교의(教義)는 모두 사악한 것임에도 무교의 두목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 도덕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공인가(何爲空)

무엇을 공(空)이라 하는가, 물질이 빈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음이 진정한 공이다. 하지만 선종(禪宗)은 이미 법(法)이 끝나 전할 것이 없다. 난법말세(亂法末世)에 어떤 학자는 텅 빈 그 이치만 고집스레 틀어쥐고서, 경박하기가 마치 철리(哲理)의 근본을 깨닫기라도 한 듯하다. 그 조상 달마(達摩)도 스스로 오직 육대지법(六代之法)이라 하며, 후로는 더 전할 수 없다고 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예컨대, 모두 다 공(空)이라, 무법(無法)·무불(無佛)·무상(無像)·무아(無我)·무존(無存)이라니, 달마는 무슨 물건인가? 무법(無法)이라니, 선종의 텅 빈 이치는 무슨 물건인가? 만약 무불무상(無佛無像)이라면 석가모니는 어떠한 사람인가? 당신은 무명(無名)·무상(無像)·무아(無我)·무존(無存)이라 전부 공(空)이라니, 밥을 먹고 물을 마셔 무엇을 할 것인가? 옷을 입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눈을 파면 어때할까? 당신은 어찌하여 그 속인의 칠정육욕에 그렇게도 집착하는가. 여래가 말하는 공(空)은, 실은 속인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남은 마음 하나 없음이 공(空)의 참뜻이다. 우주는 본래 물질이 존재하고 형성되고 머무는 곳인데 어찌 빌 수 있겠는가. 여래가 아니면서 법(法)을

말아야 한다. 일을 할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겸허하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탐구하고 토론해야 한다. 일을 잘하지 못했으면 진심으로 수련생들에게 말해야 한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수련자이기에 일을 하는 중 잘못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은 제가 잘못했으니, 그럼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일을 잘해 보겠다는 성의(誠意)가 있다면, 당신이 보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누구도 당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당신을 법(法)을 잘 배운 흥금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대법(大法)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배우고 있다. 보도원의 일거일동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수련생은 모두 대법(大法)에 대조하여 가늠할 것이며 아주 똑똑히 보아낼 것이다.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이 있기만 하면 수련생은 당신의心性(心聲)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겸허(謙虛)해야 하며 그래야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망(聲望)은 법 학습을 잘 함으로써 수립되는 것이다.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마도(魔道)로 들어가게 되는가? 다수는 사람을 해치는 술법을 구하고자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장래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원시정교(原始正敎)는 말법시기에 들어갔기에 사람을 제도할 수 없고, 만마(萬魔)가 세상에 뛰어나와, 난법(亂法)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며, 인류에게는 심법(心法)의 구속도, 도덕의 규범도 없다. 만마(萬魔)의 조종 하에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없고 도덕과 함께 기준은 가장 빠른 속도로 타락해가고 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념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만 못하고, 바른(正) 것이 그릇된(邪) 것만 못하고, 선한 것이 악한 것만 못하며, 단정하고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만 못하고, 새로운 것이 낡은 것만 못하며, 향기로운 것이 구린 것만 못하다고 여긴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여자는 머리를 짧게 깎는바, 음이 성하고 양이 쇠(陰盛陽衰)하는 음양반배(陰陽反背)가 일어났다. 미술 작품은 도덕적 규범이 없이 인성(人性) 해방을 추구하는데, 바로 마성(魔性)을 한껏 드러냈다. 무슨 인상파요, 무슨 추상파요 하며, 한바탕 마구 발라 놓은 것이 지금 사람들의 뒤바뀐 관념에 의해 되레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한 무더기 쓰레기를 모아 놓고 현대파 조소대사(雕塑大師)의 작품이라 하고, 음악작품 중에서는 무슨 『디스코』·『재즈』,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우아한 자리에 오르게 하며, 목이 쉰 소경, 절름발이, 형상이 혐오스런 사람을 방송이나 텔레비전에서 띄우기만 하면 모두 가수로 되는가 하면, 상점의 어린이 장난감은 더욱 추(醜)하고 더 악한 모양일수록 더 잘 팔린다.

인류가 무정념(無正念)의 심리작용 하에서, 추구하는 것에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명리(名利)를 위해 살인방화를 하고서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오로지 돈만 알고 사람을 모르며, 친인마저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금전으로 읊아냈다. 돈 때문에 천리를 위배(傷天害理)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잇따라 나타났다. 성을 문란하게 하는 상품이나 선전물,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도처에서 볼 수 있고, 돈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마약을 제조하고 운반하여 팔고, 퇴폐한 마약 중독자는 비싼 마약을 사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훔치고 강탈하며 돈을 사기 치는가 하면,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및 작품 중에는 성해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인간들은 이미 손위 사람 가림 없이 난륜(亂倫)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추악한 동성애는 이 시기에 이지를 상실한 더러운 심리상태를 나타냈다. 마피아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도리어 폭력과 마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시장이 되었는데, 마피아 두목은 숭배하는 우상이 되어 분분히 그에게로 몰려들고 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如何輔導)

각지의 많은 보도원(輔導員)은 대법(大法)에 대해 아주 높은 인식이 있어 솔선수범(以身作則)하여 연공장을 아주 잘 조직하였다. 그러나 잘하지 못한 보도원도 있는데 주로 업무처리 면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보도원 일의 편리를 위해 수련생으로 하여금 보도원에게 복종토록 연공장에서 명령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法)을 배우는 자원은(自願)해서다. 만약 배우는 자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모순이 나타날 수 있다. 만일 고치지 않으면 모순이 격화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법(法) 배우는 것을 심하게 파괴할 수 있다.

더욱 심한 자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늘 일부 골목 소식을 전하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을 전하여, 자신의 성망을 제고하거나 또는 남달리 독특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안 된다. 우리의 보도원은 사부가 아니고 자원적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이런 집착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도원 일을 잘할 것인가? 우선 자신을 수련생으로 두어 수련생 위에 있다는 마음을 갖지

한 번 보고나서 혹시 단 한 가지 문제라도 명백해졌다면, 그 역시 진정으로 제고한 것이다.

사실 당신은 수련 중에서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수련되어 올라온 것이다. 기억하라. 구함이 없어야만 스스로 얻게 된다.

역사상 많은 대각자, 선지자(先知者)들이 모두 이때에 인류에게 곧 대겁우환(大劫之憂)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다. 오늘의 인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보다도 더 나쁘다. 사람이 생생세세에 아주 많은 나쁜 일을 하여 비할 바 없는 큰 업력을 쌓았기 때문에, 집을 나서기만 하면 곧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전생(前世)에 나쁜 일을 하여 진 빚을 갚아 업을 없애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 좋지 않게 대하면 용서도 인내도 없이 당신이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하면 나는 당신에게 더 심하게 하겠다고 한다.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남을 건드리지 않고, 남이 나를 건드리면 나도 반드시 남을 건드리는데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다. 이전의 업을 갚지도 못했는데 또 새로운 업력을 짓게 되어 신체에는 업력이 많기로 사람이 놀랄 정도다! 인류의 도덕은 급속히 타락해 이미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 사실 인류 도덕의 대 폐괴는 생생세세 사람마다 모두 좋지 않게 부추기는 일을 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세계에 매번 겁난이 출현할 때는 모두 인류의 도덕이 고갈되었을 때였다. 이것이 바로 말겁 시기의 표현이다.

진수(眞修)

진수(眞修)제자여, 내가 당신에게 가르친 것은 수불수도(修佛修道)하는 법(法)이건만, 당신들은 속인 중의 이익이 손실됨으로 인해 오히려 나에게 괴롭다고 하소연할 뿐, 자신이 속인 중의 집착심을 내려놓지 못함에 대해서는 괴로워하지 않는데, 이것이 수련인가? 속인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은 초상적인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이다. 진수제자는 사람마다 모두 넘어야 하는바, 이것이 수련자와 속인의 경계선이다.

사실 당신들이 속인 중의 명(名)·이(利)·정(情)에 해를 입어 괴로워한다면 아직 속인의 집착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다. 당신들은 기억해야 한다! 수련 자체가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속인의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당신들이 명(名)·이(利)·정(情)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때, 당신들은 비로소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당신들이 비할 바 없이 아름답고도 성결(聖潔)한 세계에서 떨어져 내려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그 층차 중에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비교해 보면 가장 더러운 세계에 떨어지고서도 당신들은 재빨리 되돌아 수

법을 배우다(學法)

지식인이 대법(大法)을 배움에 주의해야 할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대법(大法)을 일반 속인 중에서 이론저서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다. 마치 알맞은 명언어록(名人語錄)을 선택해서 자신의 행동을 비춰보며 배우는 것과 같은데, 이는 수련자의 제고에 방해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대법(大法)에 아주 깊은 내포가 있고, 부동한 층차의 수련을 지도하는 아주 높은 것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한 글자 한 글자씩 파고드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장기적인 정치이론 학습 중에서 양성된 습관 역시 수련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요소로서, 법(法)을 곡해(曲解)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법(法)을 배울 때, 기어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알맞은 부분만을 찾아서 학습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 역시 일종의 변상(變相)적 집착(모순이 있어서 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포함하지 않음)이다. 대법(大法)을 잘 배우려고 한다면 어떠한 목적도 품지 말고 배워야만 비로소 옳은 것이다. 『전법륜(轉法輪)』을 한 번 읽을 때마다 좀 명백해졌다면 바로 제고한 것이며, 당신이

왜 볼 수 없는가(爲何不得見)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곧 믿지 않는 이것은 하사(下士)의 견해이다. 사람은 미혹 중에서 업을 너무 많이 빚어, 본성이 미혹되었으니 어찌 볼 수 있겠는가. 깨달음(悟)이 먼저이고 보는 것은 나중이라, 마음을 닦고 업을 제거하여 본성이 나와야만 비로소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사(上士)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깨달음에 의해 원만을 이룬다. 못사람은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층차로 정한 것이며 근기(根基)에 의한 소치다. 많은 수련자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이는 집착이라, 버리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많게는 업력에 의한 저애이거나, 환경이 적당치 않아서거나, 또는 수련하는 방법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라, 사람에 따라 정해진다. 보이는 자는 보더라도 똑똑치 않을 수 있는바, 똑똑히 보이지 않아야 도를 깨달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이 그 어느 경지에 이른 듯 무엇이나 다 똑똑히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개공(開功)한 것으로 더는 수련할 수 없으며 그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련하지 않고, 오히려 또 더러운 세계 속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붙안고 놓지 않으며, 심지어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모른다. 당신들은 아는가? 부처(佛)는 당신들을 제도하기 위해 일찍이 속인 중에서 동냥했고, 나는 오늘 또 큰문을 열고 대법(大法)을 전수하여 당신들을 제도하고 있다. 나는 무수한 괴로움을 겪었어도 고통스럽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또 무슨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는가? 당신이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갖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명지(明智)

내가 일부 수련생들에게 사상이 과격한 것은 일종 사상업(思想業)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알려주자, 지금 많은 수련생들이 평소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리 좋지 못한 일체 생각을 모두 사상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당신 자신에게 어떤 좋지 못한 생각도 다 없다면, 당신은 또 무엇을 수련하겠는가?! 그렇게 순결하다면 당신은 바로 부처 아닌가?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자신의 사상 중에서 더러운 생각이 격렬하게 반영되어 나와 스승을 욕하고, 대법(大法)을 욕하며, 사람을 욕하는 등등의, 내버리지도 억누르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사상업력(思想業力)이다. 그러나 또 일부 약한 것도 있으나, 통상 정상적인 사상 염두와는 같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깨달음(悟)

인간 세상이 혼탁(渾濁)하여 옥석이 뒤섞였구나(珠目相混). 여래가 세상에 내려옴은 필연 은밀하다. 법(法)을 전함에 필연 사문(邪門)의 교란이 있다. 도(道)와 마(魔)가 함께 전해져, 한 세상에 함께 있으니, 진짜와 가짜를 가려냄은 주로 깨달음에 달렸다. 어떻게 분별하는가, 필연 상사(上士)가 있다. 과연 맺은 연분대로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인지라, 잇따라 모여와 입도(入道)하여 법(法)을 얻는구나. 정(正)과 사(邪)를 가려내어 진경(真經)을 얻고, 그 몸을 가볍게, 그 지혜를 풍부하게, 그 마음을 충실하게 하여 법선(法船)에 오르니 유유하구나. 옳도다! 원만을 이룰 때까지 정진하라.

혼세(混世)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살고 권세를 위해 죽는다. 파리 대가리만한 작은 이익을 위해 기뻐하고 걱정하며 고달프게 닦으니 일생토록 업(業)을 빚는구나. 이런 사람이 만약 이 법(法)을 들으면 필연 비웃으며 미신이란 두 글자를 뱉어내고,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믿기 어려워하니, 이런 사람은 하사(下士)라 제도하기 어렵다. 업이 커서 이미 그 몸을 봉(封)하고, 그 지혜를 달아버렸으니, 본성이 없구나.